

계급과 성(sex)의 갈등 구조로 바라본 『파멜라』

박 은 정*

차 례

1. 서 론
2. 계급과 성(sex)의 갈등 : 상승작용
3. 고백의 서술 : 글쓰기 문제
4. 결 론

1. 서 론

문학작품을 음미할 때 독자는 한 작가의 인생관이 반영된 텍스트에 천착하여 작품의 구성과 성격 등의 발전을 추찰하고 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쁨과 슬픔을 교감한다. 작가, 텍스트, 독자라는 세 가지 차원의 관계망은 굴절되고 은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자의 차원에서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독자는 그들 나름의 경험의 종류와 심도가 다르므로 어떤 텍스트에는 강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작가가 작품을 산출할 때의 과정도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한 작가는 그가 속한 당대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받은, 그러나 좀 자율적일 수는 있는 인격체이며, 작가는 그러한 역사와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작품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그 작가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허용한 범위 내에 재현되었으며, 비록 작가의 의도가 이데올로기의 범주 밖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대의 독자층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왜곡한 채 텍스트를 읽게 된다.

더욱이 후세대의 독자가 구시대의 작품을 읽을 때는 작가가 속한 당대 사회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영미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결속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구시대적 가치관의 산물이며 독특한 한 작가의 산물인 작품을 오독할 수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인과 관계처럼 보이는 세 가지 영역—작가, 텍스트, 독자—의 연결 과정은 이러한 구멍과 간극 때문에 텍스트가 산출된 역사와의 제반 관계를 추론해 보지 않고는 올바르게 공정한 텍스트의 이해가 있을 수 없다. 결국 문학 작품이란 역사 속에서의 문학(literature in history)이지 초역사적인 보편성만을 가진 근원과 뿌리가 없는 골동품적인 가치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푸코(Michel Foucault)는 역사란 역사의 기록에서 다행히 보존된 개인적이고 집단적 기록의 저장소(repository)이며, 역사는 정교하게 구성된 재현(constructed representation)으로서 특정한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지는 기억의 융합체(fused memories)라고 했다(Foucault, *The Archaeology* 75). 이 말은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역사조차도, 역사를 조명해서 쓰여진 당대의 공통적으로 수립된 가치 판단이며, 역사조차도 기록자 개인의 주관이나 시각이 첨가되어 기술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절대적 진리처럼 여겨왔던 역사가 상대적 가치의 판단이기에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와해된 셈이다.

역사를 재고해 본 푸코는 여성학을 “반대기억”(counter-memory)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수세기 동안 의식적이고 체계적(systematically)으로 억압된 자(the repressed)로서 역사의 기억에서 거부되었다는 의미이다(Foucault, *Language, Counter-memory* 113-16; Lourie & Stanton 3). 낸시 밀러(Nancy Miller)는 『여성 영웅의 텍스트』(*The Heroine's text*)에서 불문학과 영문학의 여주인공을 해석할 때, 여성독자들은 남성위주의 독법(phallic reading)을 전복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Nancy Miller 149-58). 18세기 주요 여성작가의 발굴과 그들의 작품을 감별해 봄으로써, 성(sex)과 경제(economy) 면에서 낙후된 여성들의 양상을 탐색했던 밀러(Kate Miller)는 당대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행복한 텍스트’(euphoric text)로서 여성 주인공들이 부상되고 사회와 통합된다. 다른 한 그룹은 ‘불행한 텍스트’(dysphoric text)로서 주인공이 죽음으로 고통 받고 재산을 갈취당하고 능욕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자

의 예로써는 『몰 플랜더즈』(*Moll Flanders*)와 『파멜라』(*Pamela*)를 손꼽고, 후자의 경우는 『클라리사』(*Clarissa*)를 예증하였다.

18세기에는 남성 가장의 권위는 대단해서 그 자신이 법으로 행세할 정도로 도덕적, 종교적 실체의 반영이었다. 여성의 재산은 결혼과 더불어 남편의 소유가 되고 아이들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소유였다. 그리고 남편만이 이혼의 청구가 가능했고, 남편은 때리거나 감금함으로써 아내를 처벌할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의 실체는 전적으로 남성의 권능 안에서 구현되었고, 자유와 재산과 권위를 결혼과 함께 남편에게 이양한 채, 여성은 노예 신세나 다름없는 위치로 전락되고 말았다(Bull 62-5: Watt 159). 이러한 역사, 사회적 배경 하에서 사무얼 리차드슨(Samuel Richardson)의 첫 소설 파멜라(*Pamela*, 1740)¹⁾는 당대 독자층의 인기를 선풍적으로 끌게 되었다.

원래 이 작품은 전 4권 2부로 구성되어 있다.²⁾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은 1740년에 출판된 미스터 비(Mr. B)의 유혹과 그것을 덕성으로 보상받아 결혼을 하여 현명하게 결혼생활을 이끄는 여주인공 파멜라(Pamela)의 중심 스토리인 1부 만이지만, 1741년에 인기 절정으로 인한 후속으로 나온 『파멜라』(*Pamela*)는 결혼 후에 일어나는 두 부부의 생활상(Pamela's life after her marriage)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1742페이지나 되는 전 권을 다시 읽어야만 이 『파멜라』의 완성감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한다. 1부에서는 파멜라라는 여자 하인이 성(sex)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상승과정과 더불어 미스타 비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문제와, 그녀가 올케 레이디 데이버스(Lady Davers)와의 갈등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계급의 일원으로 사회화 되는가를 흥미로운 장면묘사와 심리묘사를 통해 주로

1) Samuel Richardson, *Pamela or Virtue Rewarded*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1958) 필자는 앞으로의 텍스트 인용은 이 텍스트를 기본으로 P라고 표기하여 페이지 수만 적겠음.

2) Samuel Richardson, *Pamela: or, Virtue Rewarded* (Oxford: Shakespeare Head Press, 1929) 필자는 이 텍스트가 1741년 12월에 12절판으로 나온 것까지 포함하여 최초로 4권이 잘 정리된 제 3판을 기준으로 출판된 것이기에 참조 비교하였다. 필자는 1부만을 소개하고 있는 Penguin판과 Norton판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 왔었고 이 본문을 쓰기 시작할 당시에는 권수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은 Norton 판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텍스트 인용은 계속 이 Norton 판으로 하겠음. 이 텍스트는 P. 254에서 1권이 끝난다. 필자가 Norton 판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저의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노튼 판이며, 필자의 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부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부에서는 글의 스타일과 톤이 성숙되어 성격묘사를 중점으로 사회적 귀족의 계급으로서 성숙한 파멜라가 귀족사회의 한 일원으로 꾸준히 적응하는 생활상의 문제, 즉 레이디 데이비스와의 계속되는 갈등과 난봉꾼 남편 미스터 비를 인내하여 어떻게 사회적 정신적 유복을 보유하는데 성공하는가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2부는 파멜라의 스토리가 아니라 남편의 개심과정과 그의 정신적 유복을 묘사한 미스터 비의 스토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Sturrock 229). 그러나 대부분의 비평가나 학자는 2부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고 구성이 느슨하기 때문에 혹평을 하면서, 주로 1부, 즉 결혼으로 성공하여 그 계층에 적응되기까지의 『파멜라』를 주요 관심으로 삼고 있다.

여자이면서 고용인이기 때문에 이중의 노예나 다름없었던 여주인공 파멜라는 그녀의 우월한 세련미와 자비를 덕으로 갖추어 성공적인 결혼을 한다. 그렇지만 작가 리처드슨은 그녀가 겪는 고통스런 사회적 고난 속에서도 힘겹게 분투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18세기의 비정한 결혼 시장을 보여주고 계급과 가정의 문제점들을 폭로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그녀의 편지와 일기이므로 그녀의 의식과 관점에 의해 조명되었기 때문에 파멜라의 목소리와 언술은 작가와 같은 권위와 호소력을 지닌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계열에 속하여 소설을 역사의 이데올로기의 재현이자 전달 도구로 파악하고 있는 마이클 맥케온(Michael Mackeon)은 『파멜라』를 여성의 의식과 사회변화의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통찰하며, 리처드슨을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변혁을 문학 속에서 구성해 보려는 갈망이 충만된 세계관을 가진 작가로 호평하였다(Mckeeon 381; Warner 62, 64; Wussman 89). 본고의 목적 또한 상기했던 비평가들의 시각에 긍정하여, 작품 『파멜라』를 분석할 때 성적(sexual) 계급적 열등자였던 하녀 파멜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그녀가 자아의 정체성을 역사 속에서 파악하고 조정했는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제껏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작가 리처드슨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할 때, 최초로 주인공의 심리묘사를 뛰어나게 구현했으며, 당대의 주요한 가치관이었던 덕성(virtue)이 보상된 행복한 결말의 소설을 쓴 독자층의 기대에 부응한 작가로 간주함으로써 리처드슨의 도덕적 모순과 혼선을 간과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즉 작가의 동시대에 속하지 않는 독자인 필자는 미학적 거리를 유

지한 현대적 시각에서 『파멜라』를 분석해 볼 때, 작가 리차드슨이 얼마나 당대 이데올로기와 부응 혹은 부적응한 채, 이중전략으로써 글을 썼는가에 대해 한 가닥의 해석의 지평을 열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역사와 사회의 측면에서 파멜라의 자아의식을 조감해 볼 것이며, 3장에서는 파멜라와 리차드슨을 병치시켜 작가의 글쓰기 문제를 토의해 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고의 비평시각이 현대의 가치관과의 어떠한 문맥 속에 있는가, 그 작업의 의의를 정리해 볼 것이다.

2. 계급과 성(sex)의 갈등 : 상승작용

테리 이글튼(Terry Eagleton)은 『파멜라』를 맹수가 매혹적인 왕자가 되고 불쌍한 부엌데기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소망충족의 환상이며 요정의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계급상승의 만화적 마술적 희극이라고 혹평했다(Eagleton, 37, 39). 그러나 필자는 결보기에 행복한 결말로 끝나난 듯한 『파멜라』를 해체적 독법으로 자세히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주인공 파멜라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상을 어떻게 견지시키려는가를 탐지해 보고, 작가 리차드슨이 얼마나 남성우월주의에 침윤되었는가를 치밀히 연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이이라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여성상인 신데렐라(Cinderella)가 해체적 독법으로 읽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에게 논쟁의 시발이 되듯이 『파멜라』 역시 신데렐라의 유형(ur-Cinderella Plot)을 취하고 있다(Smith 221; Berg 116). 그 예로써 이안 와트(Ian Watt)는 파멜라의 결혼이 여성독자들을 훈련(disciplines)시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Watt, 153-4). 한편 산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와 수잔 구버(Susan Guber)는 여성은 결혼이라는 남성의 중재(male intervention)를 통해서 만이 편승할 수 있다는 점을 한탄한다(Gilbert & Guber 69).

이 작품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젊은 하녀 파멜라가 그녀의 주인인 미스터 비에게 유혹당할 위험을 모미있게 그린 작품이다. 여주인공 파멜라는 몰락한 중산층 출신으로 궁핍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미스터 비 집의 하녀로 왔다. 연로 하신 여주인(my good lady)이 노환으로 사망하자, 그녀가 죽게 되면 실직을 하

게 될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여주인의 아들 미스터 비가 그녀에게 직무를 주어 친질을 베풀자 안도하고 감복하여 그 감사의 심정을 그녀의 부모에게 알리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미스터 비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파멜라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손을 잡으면서 그의 리넨을 간수하는 직무를 준다.

내가 너를 다 돌봐줄게, 파멜라야(그러면서 내 손을 잡아 주셨다: 그렇다, 그는 이런 배려를 하기도 전에 내 손을 먼저 잡았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시야, 그러면 너는 내 리넨 셔츠를 손질해 주면 돼.

I will take care of you all, and for you, Pamela, (and took me by the hand; yes, he took my hand before them all,) for my dear mother's sake, I will be a friend to you, and you shall take care of my linen. (p. 3-4)

이 글귀는 처음부터 계급과 신분의 서열(hierarchies)을 파멜라에게 혼동시키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는 낮은 신분의 종속 계급이기 때문에 그녀의 슬픔이 노부인의 사망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인지, 혹은 양자의 복합적인 심리인지가 혼동되어 독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주인에 대한 슬픔은 단지 당시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일 수도 있기에 탐욕스런 본성을 위장한 위선적 언행일 수가 있다.

“친구”(friend)라는 용어는 첫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자선과 자비를 베풀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둘째로는 성(sex)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고, 셋째로는 신분의 우월과 열등을 떠나서 평등(equality)을 부여하겠다는 계급간의 격차를 와해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리넨은 셔츠와 속옷을 의미하므로 성적인 함축을 다분히 연상시킨다. 그리고 미스터 비는 죽은 어머니의 소모품 중, 귀부인들이나 신는 우아한 스타킹을 하녀 파멜라에게 주는 애매한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파멜라야; 예쁜 하녀가 꼭 신발과 스타킹을 신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니?”(Don't blush,

Pamela: Dust think I don't know pretty maid should wear shoes and stockings? p. 12)라고 말했을 때도, 성적 이미지가 감지된다. 이같은 다의적 해석상황 속에서 미스터 비는 성적인 친구(sexual friend)를 의도했는데, 파멜라는 이 세가지 의미를 결혼함으로써 친구의 상태를 획득하는 평등의식까지 확대 해석하여 의식적 무의식적 상승 작용을 기도한다.

여자이면서 종속계급, 즉 이중적 피착취 계급인 그녀가 성의 보편적 희생물로 전락되는 위기에서 구원되는 원인은 그녀의 가정, 즉 부모의 고정된 도덕적 관념의 세계에 의해 영향을 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낭만적 가치를 가진 파멜라가 그 세계로부터 빠져나와 내적 외적으로 복잡한 세계로 성장하면서, 미스터 비의 열정을 잘 유도함으로써 당대 그들의 평범한 가정관을 거부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파멜라의 부모들은 훌륭한 해석가(good hermeneutics)로서 주인 미스터 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Miller 39) 그녀에게 경계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주인의 권력과 부에 압도되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예로써 미스터 비가 스타킹을 주며 파멜라에게 접근한다는 상황을 전달받은 부모의 답장은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의 귀한 딸이 정조를 잃게 될 경우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란다”(But our chief trouble is, ...the loss of our dear child's virtue would be a grief that we could not bear. p. 5-6)라고 말하며 이내 극도로 걱정을 하며 파멜라에게 몸가짐을 깨끗이 하라고 권고한다. 그러자 그녀는 비천한 계집을 농락함으로써 주인이 얻는 바가 무엇이겠냐고 반문하며 미스터 비를 훌륭한 분(good gentleman)이라고 칭송한다. 그리고 링컨셔어(Lincolnshire)에서의 수난의 감금 생활을 들은 파멜라의 부모는 그녀에게 윌리엄즈(Williams) 목사에게 결혼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이 충고는 낭만주의자이면서 계급적 상승작용을 실현시키려는 파멜라에게는 사랑하지도 않는 자와 결혼하라고 충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미스터 비의 행위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에, 파멜라는 부모님의 단순하고 경직된 도덕관을 따르지 않고 미스터 비와의 관계를 숙고하며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 충족을 상황의 진전을 통해서 해석해 나간다.

비평가 이안 와트는 당시의 하녀들은 그들의 청춘을 21세까지 오직 주인 밑에

서 보내야 했으며, 결혼마저도 금기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기술했다(Watt 162). 이처럼 당시에는 청교도적 도덕관에 입각하여 평등사상을 구호로 삼으면서도 주종 관계의 서열이 엄격했었다. 두 계급의 갈등적 시각을 어렵듯이 인식하는 여주인공 파멜라는 하녀와 귀부인의 직위 사이를 끊임없이 배회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뚜렷한 의식이 없었으나 차츰 계급적 정체성(class identity)에 대해 한탄을 한다. 미스터 비가 파멜라에게 순종만 하면 숙녀(gentlewoman)로 만들어 주며 그녀의 적당한 신랑감도 구해주겠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자, 이를 간파한 파멜라는 “주인님은 제게 저를 잊고 제가 가진 것을 모두 간직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운명이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은 거리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주인님은 불쌍한 하녀에게로 스스럼없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인님, 목숨걸고 맹세컨데, 저는 순결합니다. 주인님께서 왕 자이시라면,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You have taught me to forget myself and what belongs to me, and have lessened the distance that fortune has made between us, by demeaning yourself, to be so free to a poor servant. Yet, sir, I will be blood to say, I am honest, though poor: and if you was a prince, I would not be otherwise. p. 117)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회적 계급적 정체성과 도덕적 주관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알고 있던 파멜라가 링컨셔셔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나의 낮은 신분이 이렇게 내게 걸림돌이 될 줄이야”(This is the only time my low estate has been troublesome to me. p. 97)라고 말하며 자기 신분의 비천함을 통감한다. 그리고 그녀는 부모님께 “권력과 돈은 결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도구를 격상하길 원하지 않습니다”(That power and riches never want tools to promote their vilest ends, and there is nothing so hard to be known as the heart of man; p. 122)라며 권력과 재산을 남용하는 귀족들의 횡포를 고발한다.

그녀는 예전에는 미스터 비를 “좋은 신사주인”(fine gentleman), “천사”(angel)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사악한 사람”(wickedman), “더러운 주인”(naughty master), “사탄”(satan)으로 보고 “사탄은 항상 자신의 일을 진척시키고 일꾼을 부려먹을 준비가 되어있지요”(Lucifer always is ready to

promote his own work and workmen. p. 57) 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미스터 비가 성적인 공세를 취할 때마다 파멜라는 강력히 거부하고 기질을 하는데, 이러한 표면적 시위행위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주인 미스터 비를 연모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15-6세인 파멜라는 상위계급의 이성을 의식할 정도로 자아가 정립되어 있고 그녀의 자아는 계급적 상승의 욕망과 그녀 자신의 성적 욕망, 그리고 청교도의 교리를 합리화 하려는 잠재적 이성이 있어 이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다. 파멜라의 성격과 정신연령을 표현하는 말에는 “순진한”(innocent)과 “단순한”(simple) 등의 형용사가 자주 붙는다. 그러나 이런 표현에는 모순과 아이러니, 그리고 작가의 이중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예로써는 미스터 비의 집을 나가겠다고 그녀가 이리저리한 구실을 붙여서 출발을 늦춘다든지, 청순한 시골처녀의 복장을 하고 저비스 부인(Mrs. Jervis)에게 못이기는 척하며 이끌려서 미스터 비의 앞으로 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행위, 그리고 연못에 자기 옷을 띄워 익사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은 그녀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의식적으로 순진함을 가장하는 듯하다. 미스터 비는 그녀에게 애무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런 관계를 저비스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낱낱이 편지에 기입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양면성(you little equivocator! p. 23) 을 감추면서 순진한 도덕적 가면을 쓰고 그녀의 장점(merit)으로 부각시키는 반면, 자기에게는 비난(blame)의 화살이 오게 된다고 말하며 “누가 루크레티아를 비난하겠는가”(Whoever blamed Lucretia? p. 25)라고 반문한다. 이러한 그녀의 전략을 알면서도 정욕에 끌려 다니는 미스터 비는 저비스 부인이 파멜라를 정숙하고 순진하다고 변호해 주자, “순진하다구요! 또, 정숙하다구요? 제가 단언하건데요, 저비스 부인, 그런 표현을 쓰시다니요; 제가 그녀를 보는데 아주 교묘한 바람둥이 처녀랍니다”(Innocent! again, and virtuous, I warrant! Well, Mrs. Jervis, you abound with your epithets; but I take her to be an artful young baggage)라고 정수를 찌른다. 결국 파멜라는 도덕적 선택을 할 때, 단순한 유아기적인 단일한 해석 상황에서 다의적 해석(multiple meaning)의 세계로 성장해 간다고 볼 수 있다 (Armistead 76).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 파멜라는 이중의 피착취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질타와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야생화와 같은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다. 그녀의 흰 살결과 정숙한 용모는 귀부인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그녀의 일기에서 보듯이 그녀의 언어도 그녀의 신분과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세련되고 지적이다. 그녀는 미스터 비의 권유로 책과 바느질, 그리고 편지와 일기쓰기를 일과로 삼았는데 이러한 행실 또한 귀족 계급의 특권을 향유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안 와트는 파멜라의 기절하는 습성을 비판한다(Watt 183). 그녀는 미친한 출생이 이런 특질을 향유할 자격을 거의 주지 못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런 특질을 습성화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자기 신분을 능가하는 사고가 깊숙이 형성되어 그녀의 육체까지도 외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던 스타킹의 에피소드는 파멜라의 우아함을 기준을 가늠케 해 준다. 왜냐하면 그녀는 미스터 비의 이러한 언행에 깃털 하나로도 쓰러질 정도로 당황하기 때문이다. 파멜라는 자신이 비록 신분으로서는 비천한 인물(poor creature)이지만, 공주의 영혼 못지않게 값지다고 윌리엄 목사에게 그녀의 심중을 토로했다(But, O sir! my soul inferior to that of the meanest slave. p. 164). 이것은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사고하는 인간 본질의 고귀성을 위미하며, 또한 계급 상승을 원하는 당대 18세기의 영국의 중·하층민들의 계몽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는 이 두 연인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갈등관계임을 알 수 있다. 미스터 비는 파멜라를 소유하려 하고 파멜라는 그 보답으로 그를 소유하지 않는 한 자신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멜라와 미스터 비가 서로 소유하려는 관계를 맺게 될수록 자기 영역의 생존(self-subsistence)은 보유할 수 없게 된다(Mckee 624). 환언하면 미스터 비가 파멜라를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계쟁점이 심화될수록 그 자신의 수치감은 증가되고 그녀를 더욱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빚어낸다. 반면 파멜라로서는 미스터 비가 주인으로서의 소속감을 잊게 될 때만이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난다고(Well May I forget that I am your servant, when you forget what belongs to a master) 주장함으로써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회피한다. 서로는 서로에게 자신의 주체를 변모시키면서 둘 사이는 맺어지게 된다. 이처럼 소설은 지배와 종속이라는 소유의 효과를 자아낸다고 하기보다, 갈등이 극심해질수록 서로의 자아를 상쇄시키고 교환을 반복함으로써 지배나 종속이나 양극의

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서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심리적으로 추적해 보겠다. 파멜라는 미스터 비를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미스터 비가 사냥을 하다가 익사 직전의 급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녀는 유혹의 손길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보다는 미스터 비의 무사함을 기뻐했으며(I could not in my heart forbear rejoicing for his safety; though his death would have ended my afflictions. p. 187), 미스터 비가 그의 농간(attempt)만 멈추고 개선(reform)만 한다면 천사(angel)일 것이라고 소망한다. 또 한 예로써, 자신의 접근을 완강히 거절하는 파멜라에게 흑연 윌리엄스 목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미스터 비가 추궁했을 때 그녀는

주인님, 맹세컨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성은, 어떤 분보다도 존경하고픈 유일한 분은 신사이시며, 그 분은 나에게 영원한 불명예를 주려고 하는 바로 그 분입니다.

You may sir, the rather believe me, when I declare, that I know that the man breathing I would wish to marry: and that the only one I could honour more than another, is the gentleman, who, of all others, seeks my everlasting dishonour. (p. 198)

라고 답하면서 나의 영원한 불명예를 추구하는 신사를 누구보다도 존경한다고 고백의 언질을 준다. 그러면서도 미스터 비가 1년 후에 결혼해 주겠다는 호조건을 내세워 파멜라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는 동경해 오던 목적 달성에 황홀해 했으나 최종 결정은 주인에게 몸을 응낙하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유일한 재산은 정숙뿐이라고 강조한다.

정숙으로 무장된 파멜라에게 이끌리는 미스터 비는 주크스 부인의 학대를 받다가 자살을 기도했던 파멜라의 편지를 훔쳐 뜯어본 후에, 여인의 부덕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도달된다면 비천한 하녀계급이지만 상류층의 고귀한 정신과 품위를 지녔다고 확신하고, “나는 세상의 비난을 무시하려고 노력할 것입

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힘들게 한 역경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만일 내 생애에 힘이 있다면 나의 파멜라를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p. 253)라고 말하며 개심의 표명을 분명히 말하고 그녀의 덕을 보상해 주려고 한다. 그리고 파멜라도

그러나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말했나요? 비록 사랑이 왔다고 하더라도 언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조용히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사랑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But love is not a voluntary thing: Love, did I say?...For all I know it came, nor when it began: but crept, crept it has, like a thief, upon me; and before I knew what was the matter, it looked like love. (p. 260)

하고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솔직하게 탄원한다. 마침내 파멜라가 마부 로빈(Robin)과 하인 콜브랜드(Colbrand)와 동행하여 귀가 도중, 어느 여인숙에서 미스터 비의 마음속 깊은 감정들이 “나는 하루도 그대 없이는 살수가 없소... 자신보다도 그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p. 263)라고 절규하는 진실의 편지를 읽고난 후, 그녀는 침착하게 부모의 승락을 받자는 제안을 거부인처럼 함으로써 이 둘의 행복한 결합은 예정된다.

결국 인생의 친구를 얻기 위한 파멜라의 기도는 양성의 화합과 계급간의 격차를 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주인공 파멜라의 성적(sex)인 눈뜰과 발달은 상징적으로 여성의 사회화의 과정과 병치된다. 이것은 일종의 성적 변증법으로써 성적 발견(sexual discovery)이 성적 자기정의(sexual self-identification)의 경험을 하게 된다. 파멜라는 미스터 비에 의해서 강요된 자국을 통해 여성상(femininity)이라는 성적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이 순간을 기록하는 현재에서 미성숙한 과거를 반영해 봄으로써 성적인 자기정의를 하게 된다(Castle 471-2).

3. 고백의 서술 : 글쓰기 문제

이 소설은 주지했다시피 여성이면서 종속계급의 일원인 파멜라가 일인칭 시점으로 고백 서술(narration)하는 서간체 문학이다. 편지와 일기는 사건 발생 순간의 상황을 기억하여 재현, 묘사하는 글이므로 순간적 묘사와 회상(instantaneous Descriptions and Reflections)의 모음집이다. 이 기법은 “순간을 글로 담기”(writing to the moment)에 역점을 두고³⁾ 있으므로, 독자가 여주인공의 미성숙된 의식 상태조차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작가는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뛰어들어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중심 인물의 시각을 통해 글쓰는 순간 순간마다의 심리적 변화와 사건의 발전 양상을 산만하게 흩뜨려 놓은 채 집대성되어 있는 언술들을 통해서 독자가 해석을 해야 한다.

리차드슨의 이와 같은 예술론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등의 리얼리즘의 맥을 수립하는 초석의 위상에 위치하면서도 작가의 도덕적 어조를 피하고 절대성이 없는 한 등장인물에게 이야기의 서술과 글쓰기의 과정을 맡겨버림으로써 헨리 제임스(Henry James),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등의 현대 모더니즘 작가들의 의식의 흐름과 심리적 갈등의 가능성을 최초로 잉태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소설 『파멜라』는 여주인공 파멜라에 관한 이야기이고, 파멜라 자신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의 판단이 그녀의 시각 속에서 굴절되도록 짜여져 독자는 그녀를 최우선의 일차적 목소리로 신임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 귀족계급의 보편적 유형인 미스터 비의 의식과 사고도 파멜라에 의해 굴절되기 때문에, 그의 의도와 그의 견지에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의 동기와 결과를 독자는 공감할 수 없고, 단지 사태의 진전을 잘 모르는 수동적 입장에 선 파멜라의 제한된 관점에서만 독자에게 비추어지고 있

3) Richardson의 *Clarissa*에서 중심인물 Robert Lovelace는 “I love to write to the moment.”라고 말한다. 이 편지기법을 Richardson은 그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글쓰는 주체가 critical Situation이나 instantaneous Descriptions and Reflections, 그리고 affecting Conversations에 매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Richardson, *Clarissa* XX.)

다. 비록 돈이 없고 지위 없는 15세의 하녀이지만 그녀의 판단이 독자에게 조명되므로 파멜라는 주인 미스터 비와의 끊임없는 밀고 당김의 긴장관계에서 수동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 입장으로 자리바꿈이 일어나며 작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창작자(story maker)가 된다.

이 작품은 소설가 리차드슨의 글이지만 그는 이중적인 피지배 계급의 신분에 있어 파멜라의 목소리를 빌어 당대의 사회 문화적 갈등의 구조를 재현하고 해결을 모색해 보려고 했다. 그는 작가의 이데올로기와 이상성의 추구를 직접 작품 속에 뛰어들어 독자에게 도덕적 가치판단을 주려고 모색하지 않고, 마치 중심인물들의 시각을 통해 삶을 조명하고 인생의 진실이란 어떤 한 인물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반성한 헨리 제임스의 예술관처럼 베일에 가려진 작가 리차드슨의 모습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지와 일기 형식의 글쓰기는 18세기 작가에게 다른 장르보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모순을 더 자유로이 표현하고 기술하면서도 작가의 직접적인 사상개입이나 비난의 여지에 대한 피난처를 주는 언술행위이기에 리차드슨에게는 인기 정상의 대중 독서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야기 창작자로서 파멜라를 간주하는 것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링컨샤이어에 감금되었을 초기에 그녀는 쥬크스 부인(Mrs. Jewkes)을 속여 부모와 윌리엄스 목사 양측에게 편지를 써서 그녀의 근황을 의사소통하려고 했다. 그러나 쥬크스 부인에게 방해를 받자, 파멜라는 그녀의 편지와 글쓰기는 아무 것도 아닌 “끄적거린 시 나부랭이 모음”(a parcel of broken scraps of Verses)임을 입증하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낙서를 좋아한다고 쥬크스 부인에게 보여주면서 그녀를 속이기도 했지요”(p. 113)이라 말하며 그녀가 글로 쓴 것을 “파편화된 의미없는 조각”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그녀의 서술(narrative)에 대한 중요한 아이러니를 준다. 왜냐하면 파멜라는 글쓰기 작업으로써 일관된 이야기, 즉 미스터 비와의 일관성 있는 모든 관계를 형성하려고 분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설 『파멜라』에서 여주인공의 깊은 의도는 미스터 비를 통해 일관된 계급 상승과 여권 신장을 의도하지만 이야기 창작자(story maker)로서 일기와 편지라는 산만하게 적산되어 있는 조각난(fragmentary, broken)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위장함과 같다.

소설 『파멜라』는 연로하신 여주인의 사망과 계급적 차이 등의 단절과 깨어짐(breaking)의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파멜라는 훌륭한 바느질 전문가로서 깨어진 사건들과 계급적 파편들을 집고 꿰매어 훌륭히 수까지 놓음으로써 미스터 비와의 일관된 관계를 구성하고 완성한다. 파멜라의 바늘은 미스터 비를 위협하는 무기이며, 그녀의 실은 조각난 관계를 접합시키는 도구이다. 결국 미스터 비 다음의 이름의 공백을 그녀의 여성성(femininity)으로 훌륭히 수를 놓아 메꾸기를 노력하는 파멜라 앤드류스(Pamela Andrews)는 A, 즉 작가(Author)의 행위(Doody, 82)라고 연상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여주인공 파멜라는 서술자로서 그녀의 자유를 구현하려는 직조자이므로 그녀의 성공은 예술에 있다. 그녀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성적 자각을 동반한(sexual awakening) 자아를 발견하고 그 경험을 잘 말함으로써 소설을 짜낸다. 그녀가 이야기 제조자라면 그녀의 소설에 가장 근본적인 독자는 미스터 비인 셈이다. (Conboy, 82-3) 그러나 파멜라가 미스터 비와 결혼을 한 후에는 소설의 극적 행위가 급격히 줄어든다. 결혼 전에는 장면묘사의 흥미와 인물들의 성격묘사에 초점을 두었지만 결혼 후에는 파멜라의 예술적 형식의 완벽성에 관심이 수렴된다. 이런 언어의 예술성과 삶을 직조하는 파멜라의 갈등은 레이디 데이비스와의 재담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누이와의 재담은 파멜라 한 개인의 경험과 도덕적 일례가 되기도 하면서 18세기 당대 사회의 언어장의 반향이기도 하다. 주인의 린네르 속옷을 바느질하는 파멜라는 이야기의 직조자로서 작가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글쓰기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종말(ending)의 문제이다. 파멜라는 주인 미스터 비와의 끊임없는 게임의 긴장관계에서 종말이 빨리 나갈 기대한다. 이것은 독자가 이 작품을 계속 읽는 긴장감되면서 종말에 대한 기대와 병치되는데 파멜라는 자신이 사랑의 게임에서 지는 무서운 종말(abominable ends)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미스터 비와의 긴장된 갈등이 언제 끝이 날지 무척 초조해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한 불안은 곧 그녀의 서술이 끝맺어지는 시기이며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파멜라는 다음의 “어디에서 끝을 맺을 것인가?”(Where will this end? p. 254)과 유사한 불안의 의식을 거듭 되뇌이며 종말을 확실히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가 편지 21에서 단적으로 증명되는데, 가정부 저비스 부인(Mrs. Jervis)이 주인의

결혼 의도를 애매모호하게 암시하며 말하길 “주인님은 몸이나 마음이나 너처럼 숙녀 태생의 여인을 원하지, 그래서 주인님은 내일 그녀와 함께 결혼하게 될거야”(p. 42)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파멜라는 얼굴이 빨개지며 자기가 모욕을 당했는데도 신사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저비스 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파멜라는 희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대로 미스터 비와 같은 집에서 기거할 것인가 아니면 청렴을 택하여 부모에게 맹세했던 대로 귀가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채, 사랑과 미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종말을 유보하고 있다.

감금의 장소였던 링컨샤이어에서 미스터 비는 파멜라에게 좋은 결과(good end)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곳의 가정부 주크스 부인에게 “파멜라를 인도하는 당신의 어려움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p. 207)라고 썼는데 그것을 파멜라가 보게 되었을 때, ‘거의’라는 말에 공포를 느낀다. “그런데, 그런데요! 언제 끝이 나나요,” “오 언제 이 의심과 불편함이 끝이 나나요!!”라고 종말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도(Donaldson 158), “한번 더 대담하게 도전해 볼래요. 신은 내 발길을 인도해 주실겁니다, 그리고 내 길을 평탄하고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거예요!”(p. 158)라고 자신의 과감한 행위에 모험을 해보는 파멜라의 끊임없는 기도가 반복되는 이 소설에는 이야기의 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 『파멜라』가 1부에서도 작품의 끝이 파멜라와 미스터 비가 결혼으로 완성되어 이상적 행복의 기대감을 독자에게 여운으로 남가지 않는다는 것은 작가 리처드슨의 의도이면서도, 그의 가치관과 도덕관의 이중전략을 간파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미 작품의 2/3선상에서 결혼한 파멜라는 이제까지의 완벽한 기대와 황홀감으로 계속 순회(circle)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진전(movement)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환언하면 주지했다시피 결혼 전까지의 두 연인의 관계는 계급적, 사회적, 성격 격차에서 오는 주종의 관계가 오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성적 변증법을 통해 자신의 주체를 변모시키는 진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 새로운 환경에 행복하게 잘 적응해 나가는 듯한 파멜라를 해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녀는 남편 미스터 비와의 관계에서 결혼 전에는 신분은 낮았지만 능동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녀의 헤게모니를 남편에게

완전히 이양한다. 남편 미스터 비는 방탕하고 독선적인 본색을 드러내는 반면에, 파멜라는 자신에게 부과된 48개의 굴욕적인 아내의 수칙을 기꺼이 감사해하며 받아들이면서 남편에게 깃듯이 “주인님”(master)이라는 존경어를 쓴다. 그리고 올케 레이디 데이비스와의 갈등도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관계를 호전시킨다. 비록 파멜라는 신분의 상승은 획득했으나 귀부인의 교양이라는 미명 아래 남성본위의 굴레에 속하여 정신적 피지배계급이 되고마는 것이다. 1741년 인기절정에 선 리차드슨은 파멜라의 결혼 후의 모험담(Pamela's adventures in married life)에 초점을 맞추어 속편을 출간했지만 스토리의 반복만이 계속되며 파멜라는 남편의 난봉, 레이디 데이비스, 셸리 갓프레이(Salley Godfrey)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가지 갈등의 에피소드를 산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특징을 이안 도날드슨(Ian Donaldson)은 파멜라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소설이지만 예술적으로는 소설은 결코 행복하게 끝을 못맺는다고 지적함으로써 당대 작가 리차드슨의 도덕관의 난제를 예리하게 직시하고 있다(Donaldson 34). 결국, 파멜라는 결코 자유를 구가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단지 신분적 물질적 보상을 받고 기꺼이 자유를 포기한 것이다. 여자이면서 하인이었던 파멜라는 자신의 억압된 신분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자유를 갈구하며 사회적, 계급적, 성적 진보를 꾀한다. 그녀는 이런 부단한 노력을 글쓰기와 병행하면서 예술적 자유와 삶의 이상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파멜라의 종말은 완벽한 자유를 무한히 연기한 채, 예술적 완성을 유보하고 있다. 그녀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볼 때 진정한 자유는 없다. 단지 자유의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는 자유의 구가 과정에서 서로를 손상시키면서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일 뿐이다. 파멜라가 작가의 일부라면, 리차드슨이 계급적, 성적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예술적 도덕성과의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작품을 재현하고 자신을 창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당대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고민과 일치한다고 간주해도 무리한 결론은 아닐 것이다.

4. 결 론

시몬 드 보부아르(Simon de Beauvoir)는 『제 2의 성』(*The Second Sex*)에서 여성들은 강제로 열등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압박은 남성들이 그들의 주도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본래 열등하다고 믿게끔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순종적으로 믿음으로써 더욱더 가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elden 135) 이러한 가부장제의 문화가 남겨준 정신적 유물로써 성에는 두 가지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고 케이트 밀레는 지적을 하고 용어를 재규명하였다. “성”(sex)는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서 결정지어지는 구별이지만, “젠더”(gender)는 사회적 상황에서 얻어진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의미한다는 심리학적인 개념이다(Millet 25-30; McConnel-Ginet 16). 따라서 여성들의 글과 여성을 취급한 문학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억압된 점들과 그 억압으로 인해 발생한 죄와 악, 그리고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배적 성이 피지배의 성에게 가한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이라고 한다.

작품 『파멜라』에서 상기의 문제점을 예시해 본다면, 파멜라가 도덕적 행동의 상징적 인물이고 당대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인물로 평가될 수 있고, 주크스 부인은 당시에 보편적인 퇴폐적 윤리관의 대변자이며 미스터 비와 같은 귀족들의 성타락을 충동질하는 하수인으로 여겨진다. 플린(C. H. Flynn)의 지적에 의하면 리차드슨 시대의 런던 가(街)는 5만명 이상의 매음부가 우글거리고 있었다고 한다(Flynn 102).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주크스 부인은 세번째로 중요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여성들은 본래 열등하고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성(sex)이라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부류이며, 그녀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이고 평범한 상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빨리 미스터 비가 파멜라를 강간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흥미롭게 책을 읽는 충동감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파멜라는 자신의 이상적인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난만적이고 사회의 악마인 주크스 부인과 싸워야만 했다. 주크스 부인은 성의 정치학에 맹종적으로 흡수된 자로서, 자신도 성적 희롱과 쾌락의 대상이 되었던 희생자이기에, 파멜라의 신분이나 성(sex)으로서는 타

락될 운명에 있음을 악몽적으로 시사한다.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현상과 해체주의 비평관이 한창 맹위를 떨치는 시대에, 페미니즘의 문학 비평이 부사하는 것은 남성위주의 사회가 은폐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반성해보자는 의도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30년대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문학의 보편적 가치만을 강조했던 신비평의 비평 시각의 허점을 극복하고, 역사와 문학의 제반관계들을 텍스트의 천착과 병행하여 고려해 보고자 하는 비평의 유행이 시작되었다. 필자도 이 시대적 유행을 타서 그러한 시각으로 『파멜라』를 재해석해 봄으로써 리차드슨 당대의 억압된 성과 이데올로기가 바로 오늘날의 억압된 이데올로기의 일환임을 깨닫고 공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텍스트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이 그것의 해석은 독자의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달려 있듯이, 필자에게는 감상적이고 다소 지루한 느낌을 주는 파멜라가 작가의 동시대인들에게는 베스트 셀러였다고 한다. 이것은 남성위주의 사회속에 위치한 리차드슨이 억압된 여성들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여성들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동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빗 데이치즈(David Daiches)도 지적했듯이 당대의 브루주아 계층이 들어가기로 간절히 바라는 계급으로 찬양받으며, 희망하는 계급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Daiches 710). 그러나 필자는 겉보기에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듯한 『파멜라』를 해체적 독법으로 자세히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여성성을 어떻게 견지시켜 나아가는가의 방법을 모색해 볼 때 리차드슨도 파멜라를 계급상승의 댓가로 끊임없는 갈등을 대처하게 함으로써 그도 당대의 남성 우월주의에 본의 아니게 침윤된 가치관을 가진자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싶다. 결국 『파멜라』는 리차드슨의 단숨의 노역(tour do force)으로 구현되어 후속되는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세련되지 못한 스타일과 어색한 기법으로 구성된 처녀작이지만 당대의 갈등적 의식을 심도 있게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A. Primary Sources

Samuel Richardson, *Pamela or, Virtue Rewarded*. Oxford: Shakespeare Head Press. 1929.

_____, *Pamela or, Virtue Reward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58

_____, *Clarissa*.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2.

B. Secondary Sources

1) Books

Armistead, J.M.(ed.) *The first English Novelist: Essays in Understanding*.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5.

Bull, J.A.. *The Frame Work of Fiction "Socio-Cultural Approches to the Novel."*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88

Daiches, David.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Vol. II*.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70.

Eagleton, Terry. *The Rape of Clarissa: Writing, Sexuality, and Class Struggle in Samuel Richards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2.

Flynn, Carol Houliha. *Samuel Richardson: A Man of Letters*. Prins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Foucault, Micha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Trans. Smith A.M. Sheridan. New York: Pantheon Books, 1972.

_____, *Language, Counter-Memory, Practice*. Trans. Bouchard, Donald F. and Simon, Sherr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Gilbert, Sandra M. and Gubar, Susan. *The Madwoman in the Attic:*

-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9.
- McConell—Ginet, Sally, *Wome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 Mckeon, Michael.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1600-174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 Miller, Nancy K.. *The Heroine's Text: Readings in the French and English Novel, 1722-178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 Millet, Kate. *Sexual Politics*. London: Virage Press, 1977.
- Selden, Raman. *A Reader's Guide to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2nd ed.. New York: Harvest Wheatsheaf, 1989.
- Todd, Janet. *Woman's Friendship in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 Watt, Ian. *The Rise of the Novel: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ldi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7.

2) Article

- Berg, Temma F.. "From Pamela to Jane Gray: or, How Not to Become the Heroine of Your Own Text." *Studies in the Novel*. Vol. 17, No. 2. (Summer 1985); 115-37.
- Butler, Marvin. "The Feminine Condition: Book Review" *Essays in Criticism: A Quarterly*. Vol. XXXI, No. 3. (July 1981); 246-258.
- Castle, Terry J.. "P/B: Pamela as Sexual Fiction"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Restoration and Eighteenth Century*. Vol. 22, No. 3. (Summer 1982); 469-89.
- Conboy, Sheila C.. "Rabric and Fabrication in Richardson's Pamela" *ELH* Vol. 54, No. 1. (Spring 1987); 81-96.
- Donaldson, Ian. "Fielding, Richardson, and the End of the Novel"

Essays in Criticism. Vol. XXXII, No. 1. (January 1982): 26-47.
Lourie, Margaret A., Stanton, Domma C., Vicinus, Martha.
"Introduction" *Michigan Quarterly Review*. Vol. XXVI, No. 1.
(Winter 1987): 1-8.

Abstract

**Samuel Richardson's *Pamela* :
Viewed from the Social Conflict of Class and Sex**

Eunjung Park

This paper has the aim to study Samuel Richardson's *Pamela* to diagnose the social conflict of class and sex when marriage was set up in the 18 century's British society. *Pamela*, an epistolary novel to confess a house servant, Pamela's emotional overflowing and conflict about Mr.B, her master in the process of their marriage. Appealed by Pamela's attractive and charming feature, her master, Mr. B attempted to take her virtue with his sexual relationship. However, Pamela refused strongly, but still allured Mr. B to continue their love. Mr. B was finally led by Pamela's love and virtue to marry her. Therefore a servant became a lady with the high social position and fortune when she married her master Mr. B. Mr. B tried to control her and raped her, but finally Pamela came to control Mr. B to get marry him with the consistency of virtue.

I pin down this social conflict of class and sex with marriage when studied *Pamela*, because in 18 C English woman's property should belong to her husband and her social position is equal to her husband as soon as marriage set up. Therefore female desire for good marriage was strong in 18c British society. I conclude Richardson conveys in *Pamela* a female confession to promote the class ascension as well as fortune when she get married.

key words : Samuel Richardson, *Pamela*, marriage, class ascension, sex.

주제어 : 사무얼 리처드슨, 『파멜라』, 결혼, 섹스, 계급상승.